



엄정순 작가의 작품 '무늬 없는 리듬'.



눈 대신 손으로 읽다... 촉각 미술의 확장



엄정순 작가 '보푸라기...'展

시각 의존하는 감상 방식 탈피
감각의 다양성 치우는 새 시도
3년 전 광주비엔날레 출품작
50만 명 체험의 흔적 작품으로

“우리는 살면서 너무 시각에만 의존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시각 외에도 여러 감각이 있는데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니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미술도 시각에서 벗어나 촉각으로 느껴보면 어떨까요?”

보는 것을 넘어 촉각 등 다양한 감각으로 미술을 연구해 온 작가 엄정순의 개인전 '보푸라기 - 촉각적 사건'이 서울 종로구 소격동에 위치한 학교재에서 28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점자책과 조형 작업 등으로 시각에 의존해온 기존의 감상 방식을 넘어 감각의 다양성과 인식의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드러낸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남는 흔적을 통해 '본다'는 행위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손끝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감각과 청각 등 다른 감각을 통해 인식의 지평을 확장한다.

전시장에서 만난 작가는 “시각보다 촉각이 주가 되는 전시”라며 “촉각은 세계와 신체가 만나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말했다.

이번 전시의 대표 작품은 '무늬 없는 리듬' 연작이다. 이 작품은 2023년 제14회 광주비엔날레에서 선보였던 설치 작업 '코없는 코끼리를 잇는 회화 작업'이다.

당시 작가는 천, 양모, 철관으로 코 없는 코끼리 조각을 만들었고, 관객들에게 작품을 직접 만지며 감상할 것을 권유했다.

그 결과 수많은 관객이 작품을 만졌고, 스치며 남긴 체온과 마찰은

양모 표면에 '보푸라기'라는 물질적 흔적으로 남았다.

작가는 이 보푸라기를 추상 회화 작업에 붙이는 방식으로 '무늬 없는 리듬' 연작을 만들었다. 작품 밑에는 '50만 명의 체온으로 빚어낸 무늬 없는 리듬'이라고 적었다. 50만 명은 2023년 광주비엔날레 관객 수다.

작가는 “보푸라기가 50만 명의 체온, 감정, 마찰 등 수많은 감각이 축적된 물질이라는 생각이 들어 작품으로 활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설치 작품 '찰나 2001-1'은 천 권이 넘는 점자책으로 이뤄져 있다. 알부미늄 프로파일에 달린 점자책들은 선풍기 바람에 의해 각기 다른 페이지가 펼쳐진다.

이 점자책은 시각으로는 읽을 수 없지만 촉각으로는 읽을 수 있는 텍스트다. 읽는 행위가 반드시 눈을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환기한다.

'찰나 2001-1' 앞에 놓인 점자책 '흑연으로 쓴 코끼리-기록되지 않은 도서관'

으로 쓴 코끼리-기록되지 않은 도서관'은 점자책을 정보 전달의 매체를 넘어 하나의 조형적, 개념적 작품으로 전환한 작업이다.

작가는 점자책 위에 목탄으로 점자 글을 적어 놓았다. 관객들이 손끝으로 점자책을 읽으면 그 위에 쓰인 목탄 글씨가 번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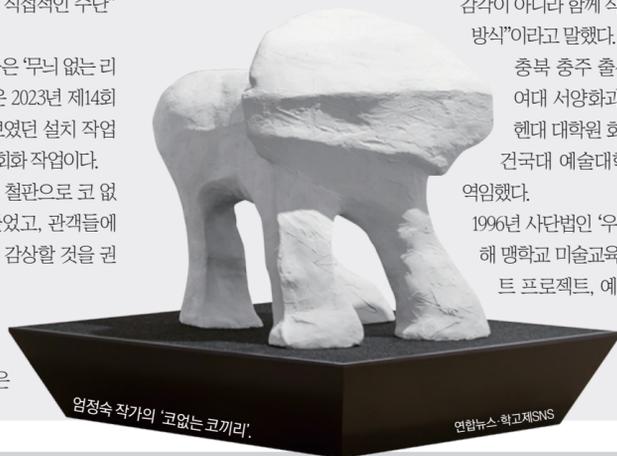
작가는 “이 전시가 끝날 때는 글씨가 다 뭉개져 오직 손으로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변형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끼리의 어느 모서리'는 코끼리의 일부를 파편처럼 분리해 놓은 작품이다. 작가의 과거 작품 '코없는 코끼리' 조형을 해체해 각각 독립된 오브제로 만들었다. 코끼리의 전체 형상은 사라졌지만, 그 일부는 여전히 코끼리를 연상시키는 상징으로 남아 있다.

작가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라는 말이 어리석은 말처럼 쓰이지만, 시각을 포함한 인간의 감각은 제한돼 있어 누구나 파편을 더듬으며 전체로 갈 수밖에 없다”며 “보는 것과 만지는 것은 분리된 감각이 아니라 함께 작동해야 하는 인식 방식”이라고 말했다.

충북 충주 출신인 작가는 이화여대 서양화과 졸업 후 독일 뮌헨대 대학원 회화과를 졸업했다. 건국대 예술대학 회화과 교수를 역임했다.

1996년 사단법인 '우리들의 눈'을 설립해 맹학교 미술교육 등 출판, 전시, 아트 프로젝트, 예술교육 관련 다양한 사업을 이끌고 있다.



엄정순 작가의 '코없는 코끼리'.

연합뉴스

인구감소지역 여행하고 경비 반값 돌려받으세요

강원·전남·경남 등 16곳서 시행
1인 10만 원, 2인 이상 20만 원

정부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경비의 절반을 환급해 주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오는 4~6월 지역사랑 휴가지원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참여 지방자치단체 16곳을 선정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해당 지자체는 강원(평창군, 영월군, 횡성군), 충북(제천시), 전북(고창군), 전남(강진군, 영광군, 해남군, 고흥군, 완도군, 영암군), 경남(밀양시, 하동군, 함천군, 거창군, 남해군)이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인구소멸에 대응하고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제도다. 여행경비의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해 지역으로의 재방문을 유도한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이며 2인 이상 단체의 경우

최대 2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18세 이상)은 해당 지역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제 여행하고 지출한 여행경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자체의 확인을 거쳐 50%를 모바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환급받는다. 지급받은 지역사랑 상품권은 올해 안에 써야 하며 여행 지역의 가맹점이나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여행 지역마다 사전 신청 시기와 증빙 방법, 환급된 상품권의 사용 방법 등 세부 사항이 다른 만큼 4월 본격 시행 전 신청 가능 지역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별 누리집 안내를 통해 경비 지원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하반기에도 4개 지역을 추가로 공모해 진행한다. 또한 올해 시범사업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부터는 점진적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영훈 기자 yhle@skyedaily.com



지난달 15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송천 일대 축제장에서 열린 '찾은 방문객들이 마지막 겨울 축제를 즐기고 있다.' 평창관광문화재단

올해 'K국악스테이지' 17회 공연... 14일 첫 무대

국립민속국악원은 국악 공연 시리즈 'K국악스테이지'를 올해 총 17회 무대에 올린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K국악스테이지'는 국악을 기반으로 한 여러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는 기획공연으로, 민속국악원 예원당에서 펼쳐진다.

이달 14일의 첫 공연은 국가무형유산 경기도도당굿의 전통을 잇는 경기도도당굿 보존회와 국립민속국악원 기악단이 함께 꾸미는 합동공연 '선율에 오른 곳'이다.

이 공연은 굿의 정서가 지닌 기쁨과 슬픔, 소망과 위로를 담은 것으로 관객이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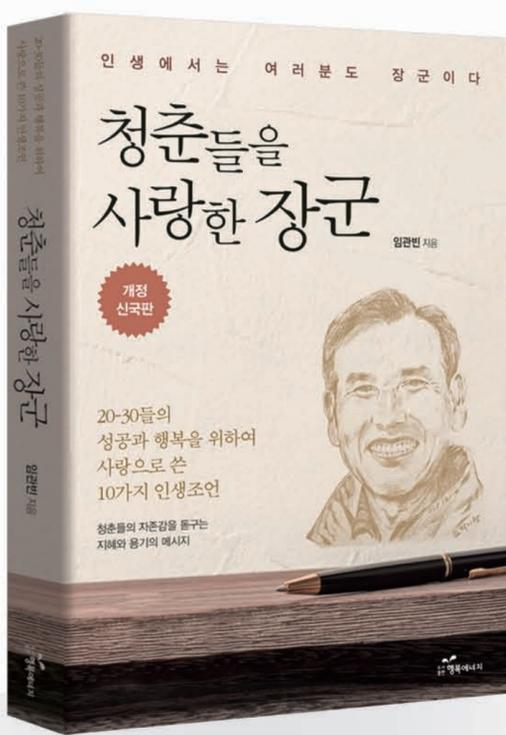


국립민속국악원 부채춤 공연.

께 호흡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민속국악원은 설명했다.

무료 공연이며, 예약은 민속국악원 누리집과 카카오톡 채널(국립민속국악원) 등을 이용해서 하면 된다.

연합뉴스



임관빈 지음 | 308쪽 | 17,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

2030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사랑으로 쓴 10가지 인생조언

우리는 삶을 살며 많은 일을 겪습니다. 희로애락이 뒤섞인 삶 속에서 당연히 행복한 순간이 있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때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겨내는 정신력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에서도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에서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2030청춘들이 본인의 삶의 지휘관으로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군인정신'을 발휘해 지금을 이겨내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라며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의 삶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팡팡팡 샘솟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